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가 입원한 제3병동은 가난과 전염병으로 '3등 인간' 취급받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한편 심 노파의 딸 강남옥은 어머니를 병간호하다가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오롱대 심작은돌 노파의 딸에게도, 어머니가 중증 폐결핵에 장질부사*까지 걸렸으니, 같은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당부해두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어코 어머니 곁에만 꼭 붙어서 잤다. 숯제 자기는 3등 인간이 아니라고 고집이라도 하듯이. 그런 것까지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계단을 내려오면서, 김 의사는 그러한 그녀를 나무라던 일을 생각했다.

[A] “어머님 곁에 가지 말했는데, 왜 자꾸만 그러지요?”
“.....”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답이 없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다. 마치 귀머거리나 이방인 같다.

“무식이란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의사 김중우 씨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뇌까렸다.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고 이쪽을 쳐다보는 그녀의 차디찬 눈 초리에는 심상치 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B] “그런 것쯤은 알아요! 그러나 우짜란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었다. 어머니와 같이 죽어도 좋다는 거라고

더구나 의사 김중우 씨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미움을 떠먹일 때 자기도 그 숯가락을 먹어 대는 태연한 광경이었다. 물론 그런 건 더욱 엄하게 주의를 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명령까지도 아예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명령한, 바로 그 의사가 보는 데서 예사로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계집애!’

똥져라 싶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후, 의사 김중우 씨는 엉뚱한 회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병을 겁내지 않는 애! 죽음까지도!

그저 안전하고 착실한 의사의 아들로서 이른바 일류의 중학, 고등 [C] 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일류란 데를 나온 레지던트 코스의 젊은 의사 김중우 씨의 단순한 생각으로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의 명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눈깔까지 해 넣고 심장 이식까지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현대 의학 이론으로써도 그러한 인간 행위만은 진단할 길이 없었다. 효도니 뭐니 하는 그런 너절한 것이 아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 어쩔 과학 따위에 의해서, 혹은 현대인의 그 약삭빠른 비굴성이랄까, 거짓 이기주의.....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말살되어가고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닐까?

요컨대 병과 세균과, 그런 것에서 오는 불행들만을 두려워해 오던 젊은 의사 김중우 씨는 어떤 막연한 정신적인 회의 내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태까지 지녀 오던 자기, 또는 자기의 일에 대한 보람이라든가 궁지 따위가 여지없이 무너져 가는 듯했다. 말하자면 무식하다고만 여겼던 시골 계집애에게 별안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중략)

그러나 강남옥 처녀는 소위 ‘절대 안정’을 취할 처지가 못 되었다. 어머니를 굶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D] 그러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미음이나 무른 죽을 먹여야 된다고 했지만(사실 환자들도 그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웬일인지 병원측에서는 꼬박꼬박 흰밥만 갖다 주었다. 그래서 대개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그걸 먹고 환자들에겐 미음이나 죽을 쑤어 주게 돼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부엌도 꽤 널찍한 게 있는 것 같고.

강남옥 처녀는 악을 써서 일어났다. 쇠붙알만한 냄비에 쌀을 조금 담아 가지고 터덕터덕 부엌으로 갔다. 절대 안정도 필요했겠지만 절대로 죽은 쑤어야 되니까.

둘밖에 없는 무연탄 화로는 벌써 만원이 아니라, 몇 개의 냄비가 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쌀을 씻으려니 찬물이 우선 몸에 딱 거슬리었다. 오싹 추워지는 것 같았다. 강남옥 처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가 이리 도고, 니도 아꾸면서 그래 가 대나!”

[E] 얼굴이 알금알금한 중늙은이가 강남옥 처녀로부터 냄비를 뺏듯이 받는다. 같은 병실에서 폐알이 딸 구완을 하고 있는 시골 사람이다. 마침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방에 가 누웠거라. 내 것하고 같이 해가꾸마.”

사양하는 강남옥 처녀를 억지로 돌려 보낸다. 아직도 시골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있는 호의요, 고집이었다.

㉠ 그 아주머니가 있는 동안은, 강남옥 처녀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딸을 위하여 하루에도 몇십 차례 간호원실 문에 가 붙어 있던 아주머니였지만, 끼니때는 강남옥 처녀를 대신해서 곧잘 죽을 쑤어 주곤 하였다.

그러한 아주머니가 드디어 병원을 떠났다. 그것도 여러 번 버르던 뒤였다. 원래, 그야말로 죽더라도 한이나 없도록 싶어 데리고 온 딸이었던 만큼 오는 ㉡ 그날부터 산소호흡을 시켰으나 병보다 돈이 지탱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잠자코 있던 딸이 어머니가 짐을 챙기는 걸 보자 이내 울기 시작했다. 나가기 싫다는 것이었다. 산소란 걸 넣어 주니 우선 숨쉬기가 수월했을 게고, 또 병원을 나가면 곧 죽을 것을 미리 짐작했을 것이다. 죽기가 싫었으리라. 살고 싶었으리라.

㉢ 짐을 챙겨 두던 날 밤, 그녀는 내쳐 울었다. 어머니는 넋없이 울고만 있었다.

㉣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꾸렸던 짐을 도로 끌었다. 그러나 겨우 ㉤ 하루를 더 견디다 그들은 결국 퇴원을 하고 말았다. 더 견딜 돈이 없었던 것이다. 3등 인간이었으니까.

- 김정한, 「제3병동」 -

* 장질부사: 장티푸스균을 병원체로 하는 법정 감염병.

27.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중우’는 자신의 당부를 어긴 ‘강남옥’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 ② ‘강남옥’은 ‘김중우’를 직접 찾아가 병원 규칙에 따르지 않은 까닭을 밝힌다.
- ③ ‘김중우’는 ‘강남옥’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의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④ ‘침대’는 ‘강남옥’이 어머니에게서 병이 전염될 위험에 개의치 않음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⑤ ‘부엌’은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들이 본인의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간이다.